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송재화¹⁾ 이재희²⁾ 김리진³⁾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만 3, 4세 자녀를 둔 어머니 275명을 대상으로 자기성찰, 부모공동양육,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부모공동양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산, 정책적 지원 체계 확립, 부모공동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강화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자기성찰, 부모공동양육, 심리적 건강성

I. 서론

현대 사회는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까지 스트레스가 확산되고 있다. 부모들은 유아들에게 빨리 성장하도록 하는 성취압력을 주고 있으며 선행학습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스마트폰 사용의 저연령화, 기관보육 시간의 증가 등이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경숙·정석진·신의진, 2016).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와 같은 중대한 사건 이외에도 부부 갈등과 같은 가정환경, 보육 기관에서의 교사-유아 간의 부정적

1)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3)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인 상호작용 등과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유아들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박성혜·김광웅, 2003). 유아들이 일찍부터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상황에 노출된다면, 이는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아가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가 개인의 삶에 중요하다. 또한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가 빠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긍정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변인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유아기 심리적 건강성(Resilience)이란 유아가 위험에 노출되었을지라도 발달과정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취를 보이는 상태이다(이완정, 2002; Cicchetti, Rogosch, & Toth, 2006;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즉, 유아가 위험 요소에 노출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유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양한 위험 상황과 스트레스에 처할 수 있는데 어떤 유아들은 같은 위험 상황이라도 그 위험을 성장이나 발달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건강성을 ‘탄력성’, ‘적응 유연성’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발달단계에 따라 구성 요인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김성수, 2006). 아동기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을 구성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박은희, 1997) 유아기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유아기 발달단계를 반영하여(이완정, 2002; LeBuffe & Naglieri, 1999)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을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수용하여 유아기 발달단계를 고려한 심리적 건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기 심리적 건강성은 외부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하는 핵심 기제이며 유아의 일상생활 적응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아기는 신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심리적 건강성은 유아기 이후 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Werner & Smith, 1992, Yates, Egeland, & Sroufe, 2003).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유아의 리더십(남궁령, 2015), 유아 교육기관 적응(조맹숙·김선희, 2011)과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기 심리적 건강성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이다(김성수, 2006; 이완정, 2002). 유아기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유아의 기질, 인지 능력 등이 있으며(이완정, 2002; 최인숙·황혜신, 2013),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 양육 행동, 가족과 관련된 요인 등이 있다.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낙관성(김성수, 2006; 김연수, 2013),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현주·문혁준, 2011),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김소라·김희태, 2018), 어머니의 감사성향(김수희·김세영, 2018), 어머니의 공감능력(정세영, 2022), 부모 의사소통 및 정서표현성(이정은·김경숙, 2019), 부모 놀이참여도(문성영·심성경, 2020), 가족건강성(김정주·박형신, 2015), 부모공동양육(김희진·박재진, 2021)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유아의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정리,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변인에 중점을 두고 그 중 자기성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자기성찰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황주연, 2011; Csank & Conway, 2004; Mahoney, 1997).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고, 감정, 욕망, 신념 및 의도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Fonagy, Gergely, Jurist et al., 1991; Slade, 2006). 다시 말해, 자기성찰은 모호하고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을 돌아보게 하며 여러 경험들을 통합할 수 있게 해주며(황주연, 2011; Dewey, 1933)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 욕구 등을 이해하여 문제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 따라서 자기성찰은 개인을 성장하게 하며 환경과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며(황주연, 2011) 대인관계 적응에도 필수적인 능력이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한다(신효미·유미숙, 2015). 부모의 자기성찰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기성찰은 부모역할만족감, 긍정적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신효미·유미숙, 2015), 어머니의 부모성찰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줄여들게 하였다(강서로·오지현, 2021). 또한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아동의 정서조절(송은미, 2019; 오지현·김지윤, 2017)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채유라·한유진, 2023)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나 정서조절, 의도적 통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유아는 부모 중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높은 수준의 자기성찰을 지닌 어머니가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바라보고 자신의 사고, 감정, 의도, 욕구를 자녀와 분리해서 지각한다는 연구가 있으므로(신효미·유미숙, 2015) 자기성찰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녀와 관계가 강화되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심리

적 성숙을 반영하는 자기성찰은 유아의 정신건강에 기반이 되는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기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부모공동양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공동양육이란 배우자의 양육 방법을 지지하고 배우자와 한 팀으로 협력하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이다. 즉, 부모가 배우자의 양육과 관련된 책임감과 능력을 믿고 배우자의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양예진, 2021). 또한 부모가 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며 갈등 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양예진, 2021) 서로의 양육에 관련된 역할, 생각 및 행동 등에 대해서 지지, 협력하거나 비난, 방해하는 과정이다(양예진, 2021). 부모공동양육은 여러 발달단계에서 중요하고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Margolin, Gordis, & John(2001)에 의하면, 영·유아기 부모공동양육은 아동기에 비해 더 높은 협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생후 초기 6년 동안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아기 부모공동양육은 영아기 부모공동양육보다 부모 간의 협력을 더 요구하였다는 연구결과(Belsky & Rovine, 1990)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기 부모공동양육은 전체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서적 안정이론에 따르면, 부모공동양육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다고 하는데 부모가 서로 지지적이고 협력적으로 양육하면 유아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정서 능력이 길러지며 문제행동이 덜 나타난다고 한다(Davies, Harold, Goekke-Morey et al. 2002). 반면, 갈등적이고 적대적 부모공동양육은 자녀의 감정과 행동 통제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Feinberg, 2003; Karreman, Van Tuijl, Van Aken et al, 2008) 낮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Cabrera, Scott, Fagan et al, 2012). 또한 긍정적인 부모공동양육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있다(김희진·박재진, 2021). 이에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의 직접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부모공동양육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부모공동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에 대한 연구가 있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아현, 2020; Schoppe-Sullivan, Brown, Cannon et al, 2008).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의 참여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부부가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긍정적 부모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영환, 2018). 어머니 관련 변인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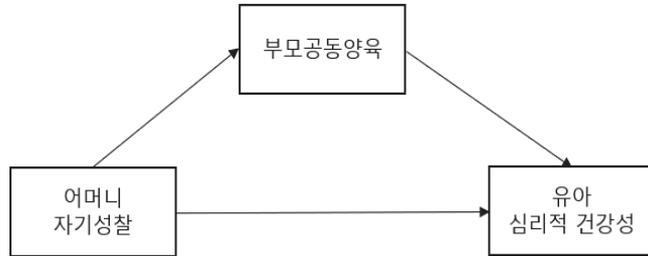
모공동양육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개인의 안녕감, 부모역할만족감 및 긍정적 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신효미·유미숙, 2015; 황주연, 2011)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높으면 어머니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부부친밀감이 높아지기도 하였다(김승옥·정혜정, 2013). 따라서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상대방을 지지하고 배우자와 한 팀으로 협력해야 하는 부모공동양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부모공동양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발달,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의 양육방법을 지지하고 배우자와 한 팀으로 협력하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인 부모공동양육은 부모, 가족 및 자녀의 특성들을 서로 매개하거나 중재하여 가족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Feinberg, 2003). 즉, 부모공동양육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의 전반적인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으며(Minuchin, 1985), 부모와 자녀의 적응 및 행동과도 관련이 높다(McHale & Waller, 2012). Feinberg(2003)의 부모공동양육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부모공동양육은 어머니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적응적 특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개인·심리적 특성인 자기성찰은 자녀 발달 및 적응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적응 특성인 심리적 건강성과 어머니의 개인·심리적 특성인 자기성찰 간의 관계를 밝히고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의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부모공동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기성찰, 부모공동양육,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만 3, 4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의표집으로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연령에 맞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총 275명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동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275)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유아	연령	만 3세	226	82.2
		만 4세	49	17.8
	성별	남자	115	41.8
		여자	160	58.2
어머니	연령	만 30세 이하	6	2.2
		만 31세 - 만 35세	104	37.8
		만 36세 - 만 40세	145	52.7
		만 41세 이상	20	7.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	5.5
		2~3년제 대학 졸업	63	22.9
		4년제 대학교 졸업	187	68.0
		대학원 졸업 이상	10	3.6

2. 연구도구

가. 자기성찰

어머니의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해 황주연(2011)이 개발한 자기성찰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유아의 어머니가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인 자기탐색(5문항, 예: 나는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본다), 자기이해(5문항, 예: 나는 화가 났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다), 타인탐색(5문항, 예: 나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타인이해(5문항, 예: 나는 상대방이 보인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성찰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기성찰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86로 나타났다.

나. 부모공동양육

부모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양예진(2021)이 개발한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유아의 어머니가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인 지지(7문항, 예: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좋은 한 팀이다), 침해(7문항, 예: 배우자는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방해가 된다), 갈등(5문항, 예: 배우자와 나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말다툼을 한다), 소통(5문항, 예: 배우자와 나는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묻는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침해, 갈등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공동양육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공동양육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다. 심리적 건강성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LeBuffe와 Naglieri(1999)의 유아용 심리적 건강성 측정 도구(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 DECA)를 이완정(2002)이 번안하여 이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유아의 어머니가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인인 애착(8문항, 예: 우리 아이는 화를 낼 때 이를 달래는 부모를 긍정적으로 대한다), 주도성(12문항, 예: 우리 아이는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과제를 선택한다), 자기통제력(7문항, 예: 우리 아이는 자신의 분노나 성나는 감정을 자제한다)

다)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부터 '아주 빈번하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유아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초기 발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리하였으며(김주성, 1998) 연령에 따라 발달해가는 발달적 경향성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이완정, 2002). 성별은 더미코딩(여자 1, 남자 0)을 연령은 (만4세 1, 만3세 0)을 적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의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 도구의 내적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22)의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고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테스트(Bootstrapping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275)			
변인	1	2	3
1 어머니 자기성찰	-		
2 부모공동양육	.60***	-	
3 유아 심리적 건강성	.75***	.63***	-
<i>M</i>	3.39	3.48	3.37
<i>SD</i>	.58	.69	.51
왜도	.22	.76	.05
첨도	-.02	-.77	-.07

*** $p < .001$

〈표 2〉에 나타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3.39($SD = .58$), 부모공동양육은 3.48($SD = .69$),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은 3.37($SD = .51$)이었다. 어머니의 자기성찰, 부모공동양육,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평균은 모두 중앙값인 2.5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은 2 미만, 첨도 절대값은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연구모형의 통계 추정방법은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제반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부모공동양육($r = .60,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r = .75, p < .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공동양육 또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r = .63,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높을수록 부모공동양육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또한 부모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도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자기성찰,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의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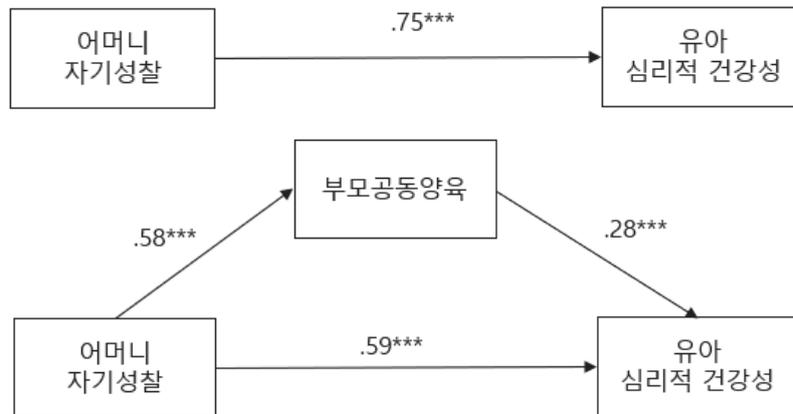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그림 2]와 같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향하는 회귀모형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향하는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37.9%,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61.9%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의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경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i>B</i>	<i>S.E.</i>	β	<i>t</i>	LLCI	ULCI	<i>F</i>	<i>R</i> ²
어머니 자기성찰	→	부모 공동양육	.70	.06	.58	12.04***	.58	.81	55.14***	.379
어머니 자기성찰	→	유아 심리적 건강성	.53	.04	.59	12.60***	.45	.62	109.44***	.619
부모 공동양육	→	유아 심리적 건강성	.21	.04	.28	5.79***	.14	.28		

***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의 관계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트스트랩 테스트를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공동양육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사이에서 부모공동양육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므로 이들 사이에서 부모공동양육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i>B</i>	<i>S.E.</i>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677	.036	.606	.750
직접효과	.532	.042	.449	.615
간접효과	.144	.035	.076	.21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부모공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어머니의 자기성찰, 부모공동양육,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련성을 밝혀 상담 및 교육 현장, 부모 양육지원 분야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들과 함의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기성찰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 욕구를 이해하여 문제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의 심리적 건강성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기성찰 능력이 높으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해하게 되고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더라도 어머니가 객관적이고 지지적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지현·최아영, 2018). 이는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송은미, 2019)와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채유라·한유진, 2023)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즉, 어머니의 자기성찰 수준이 높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유아에게 수용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모-자녀관계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자녀는 위험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Slade, 2007). 따라서 이 결과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낙관성(김성수, 2006; 김연수, 2013), 심리적 복지감(이현주·문혁준, 2011), 상위정서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김소라·김희태, 2018), 감사성향(김수희·김세영, 2018), 공감능력(정세영, 2022)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사고, 감정, 욕망, 신념 및 의도 등을 이해하는 능력인 자기성찰도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유아가 위험에 노출되었을지라도 발달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기성찰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기성찰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성찰을 높여주는 개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공동양육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높은 자기성찰은 자신과 배우자의 생각, 감정, 행동, 욕구를 잘 이해하게 하며 문제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 이를 통해 부부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공동양육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부모역할만족감과 긍정적 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황주연, 2011; 신희미·유미숙, 2015) 부부친밀감을 높인다는 연구와 흐름을 같이하고(김승옥·정혜정, 2013) 부모가 서로 지지적이고 협력적으로 양육하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장영애·이영자, 2009) 유아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정서 능력이 길러지므로 문제행동이 덜 나타낸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Davies, Harold, Goeke-Morey et al. 2002). 또한 부모공동양육은 어머니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적응적 특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Feinberg(2003)의 부모공동양육 생태학적 모델과 이현숙·서현아(2022)의 늦둥이 자녀 어머니의 역할지능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과도 같은 결과이다. 정리하면, 어머니의 높은 자기성찰은 배우자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하는 부모공동양육을 하며 부모공동양육을 통한 가족유연성의 증가는 자녀의 발달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단비·최지은·김현경, 2023). 또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공동양육은 단순한 육아의 분배가 아니라 자기성찰을 기반으로 한 배우자와 한 팀으로 협력하는 긍정적 양육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부모공동양육을 높이는 방안과 어머니의 개인·심리적 특성인 자기성찰을 함께 고려하는 개입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와 그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편의 모집하였으며 모든 변인을 어머니의 자기 보고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횡단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성찰, 부모공동양육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종단적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부모공동양육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아의 주양육자가 아니거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부모공동양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유아를 양육하는 대상을 부분로 고정하지

않고 공동양육자 간의 관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기는 어머니 외에 다양한 대상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조부모, 유아 개인 내적 변인들에 대한 확장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부모공동양육을 매개하여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여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과 그 발달경로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공동양육과 자녀의 적응 능력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및 어머니의 자기성찰 간의 연결과정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자기성찰 및 부모공동양육을 지원하여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부모교육 내용으로 부모역량 증진을 위한 부모공동양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 질 높은 부모공동양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는 부모공동양육은 배우자의 양육 방법에 대해 지지하고 협력하는 양육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부부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의 질은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는 긍정적 부모공동양육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양육 기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에서 적용하기 쉬운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된다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예방 개입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부모공동양육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기성찰 함양 지원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높은 자기성찰은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동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어머니 자기성찰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기성찰을 많이 할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격려하는 감정 코칭 반응을 하고(신효미·유미숙, 2015; 오지현·김지운, 2017) 부부관계에서도 친밀감이 높아졌다

(김승옥·정혜정, 2013).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자기성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기관과 정부 지자체에서는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이나(정춘화·심혜원, 2018) 상담 기관의 치료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기성찰에 대한 지원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공동양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부모공동양육의 효과도 높여주기 때문에 아동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는 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도입과 부모공동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부모가 긍정적 부모공동양육을 통해 서로 지지적이고 소통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지만 부부간에 갈등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Murphy, Jacobvitz, & Hazen, 2016). 따라서 정부는 부모가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제도와 탄력 근무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부부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저출산시대에 부모가 부모공동양육을 실천하여 부부유대감과 자녀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다면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권리를 다 할 수 있으며 자녀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양질의 부모공동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취약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유아교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 위한 각종 정책이 개발되어 부모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관된 양육 신념을 가지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 양육해나가는 개념으로서의 부모공동양육을 지원하는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족 상담, 양육 상담과 같이 양육에 있어 부부가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지원하는 정책도 개발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서로·오지현(2021). 어머니의 지각된 과보호 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부모성찰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9-90.

- 고정리(2017). 어머니 역할지능과 유아 리더십이 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 563-578.
- 김성수(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연구, 9, 145-170.
- 김소라·김희태(2018).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6(1), 31-53.
- 김수희·김세영(2018).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2), 319-335.
- 김승욱·정혜정(2013). 기혼남녀의 마음챙김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2), 203-229.
- 김연수(2013). 부모의 낙관성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주·박형신(2015). 어머니가 인식한 가족건강성이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3, 67-87.
- 김주성(1998). 아동의 영양과 건강. 서울 : 학문사.
- 김희진·박재진(2021). 부모의 공동양육과 자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6(2), 55-77.
- 남궁령(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2), 157-182.
- 문성영·심성경(2020).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놀이성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63-189.
- 박성혜·김광웅(200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4(4), 1-14.
- 박은희(1997).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송은미(2019). 어머니의 자기성찰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 신희미·유미숙(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성찰,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27(1), 117-151.
- 양예진(2021). 유아기 자녀의 부모용 부모공동양육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지현·김지윤(2017). 어머니의 자기성찰, 감정코칭 반응과 아동의 자기성찰지능이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미치는 영향: 다중매개효과 검증. 놀이치료연구, 20(4), 253-272.

- 오지현·최아영(2018).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놀이치료연구*, 21(4), 427-448.
- 이경숙·정석진·신의진(2016). 영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유아교육연구*, 36(3), 513-536.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 이영환(2018). 어머니 문지기행동 척도 개발 :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12, 23-39.
- 이정은·김경숙(2019). 부모 의사소통 및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8(2), 149-165.
- 이현숙·서현아(2022). 늦둥이 자녀 어머니의 역할지능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2(3), 217-241
- 이현주·문혁준(2011).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183-203.
- 장영애·이영자(2009).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 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19-629.
- 정세영(2022).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정춘화·심혜원(2018). 그림책을 활용한 어머니 자기성찰 그림책을 활용한 어머니 자기성찰.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1(2), 1-22.
- 조맹숙·김선희(2011).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1), 443-459.
- 채유라·한유진(2023). 어머니의 자기성찰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8(2), 31-43.
- 최아현(2020).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문지기 역할이 부모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인숙·황혜신(2013). 저소득층 유아의 기질과 탄력성과의 관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3), 341-353.
- 한단비·최지은·김현경(2023).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모 공동양육 수행의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7(1), 223-246.
- 황주연(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 간의 경로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9.
- Cabrera, N. J., Scott, M., Fagan, J., Steward-Streng, N., & Chien, N. (2012). Co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A mediational model. *Family process*, 51(3), 307-324.
- Cicchetti, D., Rogosch, F. A., & Toth, S. L. (2006). Fostering secure attachment in infants in maltreating families through preventive interven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623-649.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6060329>
- Csank, P. A., & Conway, M. (2004). Engaging in Self-Reflection Changes Self-Concept Clarity: On Differences Between Woman and Men, and Low-and High-Clarity Individuals, *Sex roles*, 50, 469-480.
- Davies, P. T., Harold, G. T., Goeke-Morey, M. C., Cummings, E. M., Shelton, K., Rasi, J. A., & Jenkins, J. M.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127.
- Dewey, J. (1933). *How we think*. Boston D.C.:Health and company.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3rd Ed.). The Guilford Pres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 Deković, M. (2008). Parenting, coparenting, and effortful control in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30-40.
- LeBuffe, P. A., & Naglieri, J. A. (1999). *The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Lewisville, NC: Kaplan Press. doi: <https://doi.org/10.1177/0829573507303088>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4>
- Mahoney, M. J. (1997). Psychotherapists' pers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 14-16.
- Margolin, G., Gordis, E. B., & John, R. S. (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3-21.
- McHale, J., & Waller, M. (2012). Introduction to issue on coparenting in fragile families. *Family Process*, 51(3), 281-283
- Minuchin, P. (1985).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289-302.
- Murphy, S. E., Jacobvitz, D. B., & Hazen, N. L. (2016). What's so bad about competitive coparenting? Family-level predictors of children'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5), 1684-1690.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Slade, A. (2007). Reflective parenting programs: Theory and development. *Psychoanalytic Inquiry*, 26(4), 640-657.
- Werner, E. E., & Smith, R. S. (2019).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Cornell University Press.
- Yates, T. M., Egeland, B., & Sroufe, L. A. (2003).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접수: 11월 6일 / 수정본 접수 12월 11일 / 게재 승인 12월 18일
- 교신저자: 김리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ljkim@jbnu.ac.kr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Self-reflection on Children's Resil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Co-parenting

Jaehwa Song, Jaehee Lee and Leejin Kim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elf-reflecti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and co-parenting, and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s of co-parenting on the effect of mothers' self-reflection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To achieve this goal, 275 mothers with children aged 3-4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the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revealed that mothers' self-reflection positively affected young children's resilience by improving co-parenting. This study posits that mothers' self-reflection and co-parenting are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s for young children's resilience. We proposed various measures such as spreading the correct concept of co-parenting, establishing a policy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ing co-parenting program development and operation support.

Keyword: self-reflection, resilience, co-parenting